섬진강권 통합관광벨트 조성…'K-관광' 중심지 노린다

광양시, 곡성·구례·하동 3개 지자체장 간담회…관광 공동발전 논의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 '진흥사업' 채택…남부권 관광개발 계획 공유

광양시가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문화·휴양·레저가 융합된 특색 있는 섬진강권 관광벨트를 조성해, 천만 관광객이 찾는 'K-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광양 원도심 인서리공원에서 광양·곡성·구례·하동 등 섬진강권 4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양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인화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이 주요 추진 경과와 현황을 보고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2025년 관광진흥사업', 실무협의회 워크숍 추진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4개 시·군은 2025년 관광진흥사업으로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를 채택하고, 섬진강스테이의 핵심 거점인 워케이션을 중심으로 캠핑장을 연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정유준 박사가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등 관광진흥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인화 시장은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는 섬진강을 공유한 4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라며 "각 시·군이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를 조성해 나간다면 남해안이 남중권을 넘어 K-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시가 지난 17일 섬진강권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광양, 곡성, 구례, 하동 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남부권 관광개발 계획의 2025년 관광진흥사업으로 채택된 '섬진강 별빛 캠핑 페스타'는 지난 10일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사업으로, 700만 캠핑 인구 시대라는 트렌드와 4개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관광의 취지를 잘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문, 스테이, 먹거리가 융합된 섬진강권 체류형 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를 비롯한 섬진강권 4개 지자체는 지난 2021년 섬진강권 통합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2년 7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간 협력 뉴딜사업에 선정되는 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2023년 3월 제22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에서는 '섬진강 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통합관광시대의 개막을 선언했고, 2024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4개 지자체는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민간 체험시설 연계 할인제 운영, 봄꽃 축제 공동 홍보 등 섬진강권 관광 시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지자체장 간담회와 실무협의회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곡성 향우들 스포츠로 정 나누며 고향사랑 키웠다

곡성인한마음 골프대회 '성료'

51개팀 선수 등 '화합 한마당'

곡성 향우들의 고향사랑 스포츠 축제가 뜨거운 호응 속에 펼쳐졌다.

곡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곡성군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곡성인 한마음 골프대회'가 지난 13일 곡성군 오산면 르오네뜨 컨트리클럽에서 51개팀 204명과 행사 관계자 및 지역민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강덕구 곡성군의회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이상철 전 군수, 김삼호 전 광주 광산구청장, 김영종 전 서울 종로구청장,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 김형조 곡성축협 조합장, 박찬웅·류근춘·조월성 전 재곡성군향우회장, 국옥태 재경곡성군향우골프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전 선수들은 이날 궂은 날씨에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경기 내내 선·후배간 정을 나누고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발전을 염원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경기를 마치고 2부에 르오네뜨 CC 클럽하우스에서 개회식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제11회 곡성인 한마음 골프대회'가 지난 13일 곡성군 오산면 르오네뜨 컨트리클럽에서 향우회원과 지역민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 결과 스트로크 부문에서 메달리스트에 70타를 기록한 박난희(여) 씨가 차지했고, 신페리오 부문 남자 우승 정재국·준우승 유성호 씨, 여자 우승 임소영·준우승 허영란 씨가 각각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또 행운상은 신재철 씨가 차지했다.

이날 박순규 곡성군골프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한결같이 성원해준 동호인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면서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고향발전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전국의 향우들과 지역 골프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향사랑 마음을 나눈다는데 의미가 깊다"면서 "곡성인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이 더욱 커지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청년정책 한눈에'…여수시 청년포털 구축 착수

결혼·주거·일자리 등 맞춤형 정보

여수시가 청년정책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청년포털'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청년포털'은 결혼, 주거, 일자리, 육아 등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정보를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또한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 설문 조사 기능을 갖춘 양방향 소통 공간으로 구성돼 청년들의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도 구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0월 '청년포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정책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전문가 자문단과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생태거리 교량교.

도심-순천만습지 잇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

순천만습지 병목 구간 해소 기대

순천시가 지난 17일 도심과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거리 교량교'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12월 착공 이후 약 2년 6개월의 공사 끝에 길이 165m, 왕복 4차선 규모의 신규 교량으로 거듭나게 됐다.

이번 개통된 교량은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 1등교 교량으로 최대 43톤급 중차량 통행이 가능한 안전 구조를 갖췄다. 또한 지방하천 이사천의 유수 흐름을 고려해 기존 11개 교각을 2개로 줄인 3경간 구조로 설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도사동 통천정미소까지 왕복 4차선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량 개통으로 도심에서 순천만습지로 이어지는 주요 병목 구간이 해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교량은 1967년 건설돼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와 안전 문제 등으로 철거 후 재가설하게 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최우수 농산물생산단지 연간 500t 20억 수출고

곡성 대표 과수 수출단지인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이 7년 연속 최우수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선정됐다.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82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 '최우수' 영예를 안으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과수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수출실적, 조직운영, 품질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 지난 2000년에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꾸준한 품질 개선과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해 고품질 배 생산과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특히 글로벌 GAP 인증을 비롯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와 함께, 선별·포장·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화 교육을 통해 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연간 500톤 규모의 배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매년 약 20억원의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은 배 재배 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수출에 대한 높은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전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포스코, 광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3억원 전달

에너지 효율화·복지 향상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광양시 에너지 효율화 및 복지 향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3억원을 전달했다.

광양시는 지난 17일 시청 만남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8데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기금은 광양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및 장기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창호샷시 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노후 차량 교체,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도 폭넓게 쓰일 계획이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 실현에 기여해 주신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상경 본부장은 "앞으로도 광양시와 긴밀히 협력해 함께 웃고 성장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협력기금이 광양 농어촌 현장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소중히 쓰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통큰 기부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신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기금은 광양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 국가산단 내 LNG 터미널 증설과 구역전기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협력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경사로 설치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자매마을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폭염 대비 취약층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고령자·독거노인 4000여명 대상

고흥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고흥보건소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함께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지역 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4000여명에게 폭염주의보 및 특보 발효 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 점검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중인 202명에 대해서는 블루투스 기반 디바이스를 활용한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늘 건강' 앱의 푸쉬 알림 기능을 통해 날씨 정보, 여름철 운동 시 주의사항, 온열질환 대처 요령 등을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은 폭염에 특히 민감한 만큼,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와 건강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 자제하기 ▲기상 상황 수시 확인하기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 이상 증상 시 119에 도움 요청 또는 즉시 응급실 방문 등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